

BDO 체인 원료가격 인상 줄줄이

유도제품 수요 호조에 유로화 강세로 ... 유럽제품 수입 어려워져

아시아에서 1·4BDO(Butanediol) 체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능력 확충이 지연되고 유로화 강세로 공급확대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PTMEG(Polytetramethylene Glycol) 및 PBT(Polybutylene Terephthalate) 등 유도제품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강세로 유럽산 수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Mitsubishi Chemical(三菱化學)은 일부제품에 대해 이미 출하량 할당제도를 실시하고 공급가격도 인상하고 있다. 생산능력 증강이 완료되는 2004년 후반기까지는 공급부족에 허덕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시아의 1·4BDO 시장규모는 1997년 20만톤에서 IT 불황의 영향으로 2001년 잠시 정체된 뒤 고도성장을 지속해 2003년에는 약 4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2005년에는 50만톤으로 성장하는 등 당분간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호조를 보이는 부문이 스판텍스의 원료로 사용되는 PTMEG로 중국에서 스판텍스 중합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으로 아시아 전체적으로 연평균 30%대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PBT도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NMP(N-Methyl Pyrrolidone)도 2차전지용 전해액이나 액정기반용 박리제 용도의 수요가 급증해 제3의 수요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요호조와는 달리 공급증가는 둔화되고 있는데, 특히 2002년 말 가동 예정이었던 BASF의 말레이시아 소재 6만6000톤 플랜트가 2004년 후반 이후 가동으로 연기될 전망이어서 2004년 상반기까지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공급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유럽산 수입감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는 원래 수입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켜 왔으며 공급부족분은 유럽에서 연간 5만-6만톤 수입해 충당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로화 강세에 따라 수출로 인한 실수익이 감소함으로써 유럽 메이커들의 수출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최저선에 머물고 있는 아시아의 달러 대비 환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 2004년 상반기에는 공급부족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Mitsubishi Chemical은 원료가격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점을 이유로 일본 및 아시아에서 1.4BDO 체인 전체 공급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제품은 2003년 말 이미 1·4BDO는 CIF 톤당 150달러, PTMEG는 200달러, THF(Tetrahydrofuran)는 200달러, NMP는 300달러 인상했으며, 추가적으로 1.4BD 100달러, THF 200달러, PTMEG 100달러, NMP 200달러 인상을 추진해 차기 계약물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도 2004년 1월부터 1·4BDO 가격을 kg당 15-20엔, PTMEG는 30엔, NMP는 30-50엔, THF는 40-50엔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4/01/27>